

## I. 개요

1. 일시 : 2011. 6. 9. (16:30~18:00)
2. 장소 : 연구원 11층 회의실
3. 발표자 : 권철우 경북대 교수
4. 참석자 11 명

권철우 (경북대학교 교수): 발표  
 전봉걸 (서울시립대학교 교수)  
 박성일 (KOTRA 과장)  
 이성봉 (서울여자대학교 교수)  
 김준동 (무역투자정책실장)  
 강대창 (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)  
 장용준 (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)  
 성한경 (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)  
 김영귀 (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)  
 김혁황 (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)  
 박혜리 (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)

## 4. 제 목

- Technology Transfer without the Spillover Effect from a Multinational in Strategic Competition

## II. 주요 논의 사항

- FDI를 통한 기술의 Spillver Effect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
  - 대부분의 실증분석 연구에서 FDI를 통한 기술의 Spillver Effect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FDI를 통해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로 대리변수를 두고 있음.
  - host country가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일 때 FDI를 통한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가 높게 나타남.
  - 반대로 host country가 기술수준이 낮은 개도국일 경우 이러한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음.
- 본 연구 경우 FDI의 기술 spillover effect 존재여부는 host country에 입지하는 local firm 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분석함.
  - 국가의 발전정도(선진국/개도국)에 따른 FDI의 기술 spillover effect에 대한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나 host country에 위치하는 local firm 의 adoption 선택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.
  - 즉, FDI를 통해 들어온 기술에 대해 local firm들이 이들 기술을 받아들여서 high-tech 제품의 시장에 참여하여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을 할지, 아니면 기술 adoption을 포기하고 기존 low-tech 제품 시장에서 계속 생산을 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됨.
  - 이러한 host country내 local firm 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FDI에 따른 기술 spillover effect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- local firm 들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술보유자인 다국적 기업과 local firm 들 간의 기술격차임.
- 두 firm간 본래의 기술격차가 클수록 local firm 은 high-tech 기술을 포기하고 본래의 low-tech 제품 시장에서 생산을 전담하게 됨.
- 두 firm간 본래의 기술격차가 작은 경우 local firm 은 다국적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여 high-tech 제품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.
- 후자 경우 FDI를 통한 기술의 spillover가 발생하며, 이는 host국가가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일 경우 spillover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임.